

현역-신진 정치인 대결구도

전 국회의원-변호사-교수 경쟁

광주 동남 갑

‘현역-신진 정치인’의 대결구도다.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인 장병완 의원에 맞서 서정성·정진욱 예비후보 등 3명이 오는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속의배심원단체 100%를 적용하는 경선에서 맞붙는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안철수 공동대표의 보좌관을 지냈던 서정성 예비후보는 광주의 대표적인 ‘안철수의 남자’로 꼽힌다.

안과 의사로 광주 남구의 사협회장을 맡고 있고, 제6대 광주시의원도 지냈다. YMCA와 아름다운가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다양한 시민활동을 통해 지역인과 소통해 왔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야당을 바꾸고, 야당을 바꾸기 위해 인물을 바꿔야 한다’는 인물교체론을 강조하며 지역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겸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장병완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예산통’으로 ‘호남지역 예산지킴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지역 예산 확보를 통해 지

서정성, ‘안철수의 남자’ 인물교체론 주장
장병완 “지역예산 확보 경제지도 바꿀것”
정진욱, 공정성장·사회적 격차해소 주장

■ 동남 갑



서정성(44)

· 현 광주 남구의사회장
· 전 안철수 국회의원 보좌관



장병완(63)

· 현 국회의원
· 전 기획예산처장관



정진욱(51)

· 현 당 정치혁신특위 상임위원
· 전 한국경제 TV 앵커

역의 경제 지도를 바꿔 광주 경제 성공시대 열겠다고 자부하고 있다.

또한, 남구의 숙원사업인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국토부 지정 최대 도시첨단산단과 첨단영화게임산업단지 유치, 다수의 정부 연구기관 유치 등을 의정 성과로 내세워 민심을 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인터넷서점 모닝365 대표이사, 교보문고 인터넷사업본부장, 한국경제TV 앵커 등을 역임한 정진욱 후보는 ‘경제전문가’

로써 공정성장과 사회적 격차해소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그는 ‘안철수와 함께하는 광주전남시민정책포럼’ 대변인 등을 맡아 활동하는 등 새정치에 부합하는 젊고 깨끗한 이미지를 강점으로 꼽고 있다. 하루 4시간 수면을 하면서 목욕탕 방문, 배식봉사 활동, 뛰박이 선거운동을 펼치고, 유권자들을 상대로 ‘하루 300배 큰길’ 등 특색 있는 선거운동을 선보이며 지역민심에 다가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 북구 갑

김경진 변호사와 김유정 전 국회의원, 국성근 전남대 화학과 교수의 3자 대결 구도로 경선이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직 후보를 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 의당에서 누가 후보로 나서느냐가 지역 정치권의 관심사다.

김경진 후보는 북구 갑에서만 세 번째 도전에 나서고 있다. 18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기정 의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분투를 삼켰다. 하지만 지난 19대 총선에서 그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 29.11%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줬다.

그는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실시한 YTN의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강기정 의원을 크게 앞서는 광주에서 국민 의당 바람을 일으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3전4기의 인간 드라마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김유정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쳐,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18대 국회에서 비

■ 북구 갑



김경진(49)

· 현 김경진법률사무소 대표
· 전 김대중대통령 청와대행정관



김유정(47)

· 현 국회의원
· 전 김대중대통령 청와대행정관



국성근(59)

· 현 전남대 교수
· 전 전남대 자연과학대 학장

교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대변인과 원내부대표 등 당의 중책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9대 총선에서 마포 을에 도전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광주 살레시오여고 출신인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정계에 입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호남 여성의 강단 있고 포용력 있는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대표가 영입한 국성근 후보는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화학과(이화학사)를 졸업하고 전남대 자연과학대학장을 지낸 교육 전문가다. 그는 불합리한 과거 정치의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낮은 인지도가 부담이다. 그는 경선이 속의배심원제라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 혁신의 비전 제시 등을 통해 승리를 일궈내겠다는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계파대결 양상 ‘3파전’ 치열

현역 빅매치에 정치평론가 가세

광주 광산 갑

국민의당 광주 광산 갑 지역구 후보 경선은 김동철 국회의원과 윤봉근 전 광주시의원,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 등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본선 경쟁력을 앞세운 3선 의원과 참신함을 무기로 한 신진 정치인의 대결 구도다.

지난 17대 국회에 첫 입성한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한 것은 물론 국회 산 자위원장에 이어 국토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당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을 결성해 활동하는 등 친노 패권주의에 맞섰고 국민의당 창당의 산파역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4선 고지를 넘어서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3선을 지내면서 광산 갑 유권자들의 정치적 피로도가 상당한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여기에 김 의원이 국회에 입문한 뒤, 재산이 무려 13억 원 이상 늘어났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봉근 전 광주시의원도 김 의원에 맞서 지역 표밭을 다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위 의장과 서구의회 사회산업위원장, 전

김경록, 참신함 무기 ... 안철수 측근
김동철, 국민의당 창당 기여 4선 노려
윤봉근, 시의원 출신 지방자치 전문가

■ 광산 갑



김경록(42)

· 현 당 대변인
· 현 당 창당준비위 공보단장



김동철(68)

· 현 국회의원
· 전 민주당당 대대위원



윤봉근(58)

· 전 광주시의회 의장
· 전 광주시 교육위원회 의장

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호남관광광역회의장단협의회장 등을 역임한 윤 전 의장은 광역·기초의원·교육위원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풀뿌리 3대 지방자치 분야를 완벽하게 수습하고 경험해 온 지방자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철수 대표와 핵심 측근인 김경록 대변인도 참신함과 열정을 무기로 출사표를 던지고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김 대변인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 정대철 대표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국회 보좌관과 국회정책전문위원, 민주당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또, 안철수 진심캠프 기획담당, 국민의당 창준위 공보단장 등을 맡는 등 야권 내에 촉출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는 정계에서 강직하고 합리적인 인물이란 평을 받고 있으며 전략적 마인드에 친화력도 강해 내용이 만만치 않다는 중론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당 경선이 최대 흥행이벤트다. 고흥·보성의 김승남, 장흥·강진·영암의 황주홍 의원 등 현역 의원 2명에, 방송에서 이름을 알린 정치평론가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까지 뛰어 들어 유권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애초 5명의 후보 중 2명은 컷오프됐다. 경선은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통한 100% 여론조사로 진행된다.

이 선거구의 유권자 분포도를 보면 고흥이 6만6000여명, 보성이 3만93000여명, 장흥이 3만47000여명, 강진이 3만30000여명으로 기존의 고흥·보성 유권자가 장흥·강진보다 3만22000명 더 많다.

그런데 김 의원과 김 겸임교수는 고흥 출신이고 황 의원은 강진 출신이다. 고흥 인구가 2배 가까이 많은 대신 출신 후보가 2명이어서 소지역주의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게 됐다. 따라서 보성과 장흥에서 표를 많이 얻은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역 의원은 도·군의원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두 국회의원이 도·군의원들의 잇단 지지선언을 받는 등 출세우기를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

김승남 “더민주 이길 경쟁력 갖췄다”
김철근, 정치 신인 20% 가산점 강점
황주홍, 입법·행정 풍부한 경험 쌓아

■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49)

· 현 국회의원
· 전 민주당합당 수석 사무부총장



김철근(47)

· 현 동국대 겸임교수
· 현 새정치 전략연구소장



황주홍(64)

· 현 국회의원
· 전 김진근수

각이 없진 않지만 경선에서는 조직 동원에 유리하다. 황 의원은 자치단체장 3선을 하고 국회의원을 해서 입법·행정을 모두 경험한 것이 강점이다. 또 국민의당 전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도 경선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더민주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로는 고흥 출신인 자신이 가장 경쟁력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유의 친화력과 현 고흥군수 지지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김 겸임교수는 안철수 대표가 영입한 인사라는 점과, 본인이 후보가 되면 한 번에 두 명의 현역 의원을 몰아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 신인으로서 득표율 20% 가산점이 최고의 강점이다. 세 후보 간 피말리는 접전이 펼쳐진다면 이 가산점은 승패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경기자 jikpark@kwangju.co.k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